전남지사 민주 후보 경선 본격 점화

이석형 함평군수 29일 전격 사퇴 "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주승용 의원 내달초…朴지사는 내년 1~2월께 출마 선언

이석형 함평군수가 내년 전남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군수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 내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 점화됐다. 〈사진〉

이 군수는 2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치에 익숙한 낡은 리더십을 추방하고 지방에서 성장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젊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세대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더 큰 꿈을 위해 뛰라는 지지자들의 성원에 따라 군수직을 사퇴한다"며 군수직도 전격 사퇴했다.

이 군수는 "도정 전반에 창조와 역발상의 새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도정 책임자가 변화와 혁신을 멀리하고 눈앞의 치적에 급급해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하고 있다"며 "F1사업은 개발이익이 소수 기득권층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여수엑스포는 애초 계획이 축소되면서 성공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4년간 이자만 273억원을 지급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박준영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 군수는 특히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주승용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 "후보 단일화는 없다"며 "나만의 선거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반전과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아시아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중국 현지 농가공품 유통센터 개설 ▲J프로젝트와 연계한 한중산단 활성화 ▲탄소배출권 사업 전면 시행 ▲권역별 농작물 특화 및 규모화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지역특성화 고교 및 명문 고교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보여온 주승용 의원(여수을)도 내년 1월10일께 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당초 지난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4대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따라 내년 1월10일께로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출마 선언문은 거의 작성한 상태"라고 밝혀 출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또 내년 1월23일 오후 3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며, 1월 중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내년 1~2월 적절한 시점에 공식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지사는 그동안 "일단 도정에 전념한 뒤 도민들의 뜻과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등 그동안 펼쳐온 굵직한 사업들의 연속성을 위해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주술사들의 '세계평화 기원'
사진과 함께 비둘기를 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주술사들이 2010년 세계 평화를 위한 주술 의식을 치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의 /연합뉴스

"조조 무덤? 글쎄…" 中 학자 "증거 부족 납득 어려워"

중국 허난성 안양현 안펑향 시가오쉐촌에서 발굴됐다는 삼국시대 조조(曹操.155-220)의 '무덤'을 진짜로 확정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중국 인민대학 국학원 위안지시 부원장은 지난 28일 안양현에서 발굴된 '조조 무덤'은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진짜로 결론짓는 것은 엄정한 학술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9일 보도했다.

위진남북조시대 문학 전문가인 위안 부원장은 특히 이날 오전 10시께 TV 뉴스에서 조조의 것으로 보이는 묘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지 2시간만에 별다른 추가 증거도 없이 낮 12시 조조의 무덤이라는 확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덤을 조조의 것으로 결정짓는데 가장 큰 증거가 된 '위무왕(조조)이 사용하던 창'은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위안 부원장은 주장했다.

이 무덤은 이미 수차례 도굴이 이뤄졌기 때문의 문제의 창은 누군가가 고의로 무덤 내로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위서중 무제편을 봐도 이러한 창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위안 부원장은 말했다.

아들 조비(曹丕)가 위나라를 건립하면서 무왕으로 추존된 조조는 의심이 많아 죽기 전 자기의 무덤이 도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 72개의 가묘를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무덤이 안양현에 있다는 한 학자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위안 부원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광주 자치구 내년 4분기 복지사업 중단 우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9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세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4분기 사회복지사업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각종 복지사업이 중단될 경우 생계·주거·교육 급여나 영육아 보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특히 광주 5개 자치구의 내년도 재원이 902억원 부족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의 재정실태는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568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이 감소한 268억원으로, 내년에는 30억원이 더 준 238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민공천 배심원제 관철돼야"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주권이 확립되는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시민배심원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의 취지를 살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보편타당한 인선 절차와 합의 도출 방식 등이 요구된다"며 "학계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개토론을 벌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곡성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은 곡성 무창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15억원)와 광주 서구청 노인복지관(5억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무창교의 경우 노후화로 항상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폭이 협소,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며 광주 서구는 194개의 경로당 중 8개소가 임대로 운영돼 임대기간 종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해당 공간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프랜차이즈 사업 '대박'

전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프랜차이즈 사업이 연간 매출액 250억원을 달성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본사를 둔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전문업체인 장성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가맹점 숫자가 40곳에서 89곳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개설지역도 초창기 광주·전남지역에 한정됐었으나 지금은 수도권 15곳, 영남권 12곳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맹점 증가와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매출액도 급증, 2006년 120억원에서 2008년에는 195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한마음공동체 150억원, 학사농장 100억원 등 총 2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北 "로버트 박 조사중"

닷새만에 억류 확인

북한이 지난 24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2월 24일 미국 사람 한 명이 조중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해 억류됐으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억류중인 미국 사람'의 이름 등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박씨의 억류 사실을 확인한 것은 입북 닷새만인데, 지난 3월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억류했을 때는 나흘만에 이번과 동일한 형식으로 확인했다.

북한이 박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먼저 중앙통신이 박씨의 입북을 '불법입국'으로 규정한 점에 주목, 미국인 여기자 2명과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은 뒤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상호 관계개선을 도모하다 적당한 시점에 석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씨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부분을 직접 문제삼고 있어, 북한법에 따라 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며 북한에 억류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구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